

## Workplace Health Promotion and productivity management integrating community resources (사업장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생산성관리)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터 / 이 강 숙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의 사업이 보건소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어서 지역사회 연계 사업장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인력, 재정 등의 지원과 국가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장은 조직적인 접근이 유용하며 관리가 효과적이며 고위험집단 구분이 용이하고,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접근이 용이하고 국가정책적 투입이 가능하며 건강정보와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집단별 관리가 용이하여 사업장 건강증진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win-win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하는가? 사업장 건강증진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절반이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건강증진은 보건의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직장인은 흡연,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운

동부족으로 의료비용이 발생하여 상당한 규모의 경제손실을 야기하여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의료비용은 흡연은 9.12%, 음주 8.58%, 신체비활동 3.75%, 영양불균형 0.37%, 과체중 및 비만은 6.63%로 나타난다.

왜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인가? 정부의 관심부족과 처벌규정을 포함한 제도미비, 사업주의 관심 부족, 추진의지 부족, 역량 부족, 추진능력·인력 부족, 재정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장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경영자에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손상의 위험, 만성질환, 장애에 대하여 의료비, 결근 및 업무손실을 감소시키면 의료비용 감소, 결근율 감소, 이직률 감소, 근로의욕과 충성심 향상 등 많은 이득을 준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1달러 투자에 3달러의 효과를 주며 유럽과 독일의 연구에서 1유로 투자에 2.5~4.9유로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건강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득을 설득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많은 사업주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재정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해하는 사업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요구도와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내용을 파악하였다.

113개 사업장의 1,851명을 대상으로 필요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스트레스관리 64.6%, 금연 54.9%, 운동 53.1%, 절주 52.2%, 비만관리 40.7%, 식생활관리 32.7%, 기타 4.4%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필요성으로 절주 63.2%, 식생활개선 63.2%, 금연 58.5%, 운동 57.1%, 스트레스관리 50% 순으로 나타났다.

요구도조사를 기반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프로토콜을 포함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효과적이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건강위험평가와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사업장 건강증진의 필요성과 방향을 찾아가고자 한다. ☺